

우리 집에 놀러 올래?

- 인천나비공원 -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 ✔ '인천읽기그림책'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 ✔ 이 책에서는 글을 읽는 즐거움과 함께 그림을 찾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대장의 그림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으려 읽어 보세요.
- ✔ '인천읽기그림책'을 통해 인천과 친해지고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자신감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장

우리 집에 놀러 와.

인천나비공원 들꽃동산에서 기다릴게.



자연교육센터

★ 출발



나비생태관



토끼장



들꽃동산

★ 도착!



소리동산



습지원

나비의 초대장을 받았어요.

'인천나비공원'에 놀러 오세요.

지도를 보며 출발!

곤충체험장



먼저 자연교육센터에 들렀어요.
살아있는 곤충들이 있어요.
뽕이 있는 장수풍뎅이가 마음에 들어요.

닥터피쉬

닥터피쉬야
너는 누구니?



"내 손을 깨끗하게 해 줄래?"
닥터피쉬들이 내 손에 달라붙어요.
손가락이 간질간질 간지러워요.



나비생태관에 들어가 보아요.
둥근 모양이 꼭 우주선 같아요.
안에는 나비들이 가득해요!



앗, 나비가 내 손 위에 앉았어요!
날개의 무늬가 참 예뻐요.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느라 바빠요.
애벌레는 언제 번데기가 될까요?



건너편에는 토끼장이 있어요.
"토끼야, 간식 먹어."
토끼가 당근을 맛있게 먹어요.



땡땡땡!
소리 동산에서 신기한 소리들이 들려요.

쟁그랑
쟁그랑



막대를 치며 소리 터널을 지나가 보아요.

딩동댕동



커다란 실로폰도 두드려 보아요.
막대가 짧아지면 더 높은 소리가 나요.



습지원을 걸어요.
연못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소금쟁이도 물 위를 둥둥 떠다녀요.

찰칵!



드디어 들꽃동산에 도착했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나비와 함께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우리 오늘 인천나비공원에 놀러 갈까?"

"엄마, 저는 어젯밤에 벌써 다녀왔는걸요!"

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과장 변종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전문관 김태정

기획 및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김태선

글 공배원 인천동암초등학교
이선영 인천부마초등학교
이정환 인천부개초등학교
호명성 인천부개초등학교

그림 신소연(아시시꽃)

발행일 2023.11.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저작권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우리 집에 놀러 올래?
- 인천나비공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